



필승 키워드는 ‘컨트롤·조커’

뛰어난 전략으로 4연승을 일구며 4강전에 오른 김학범호가 도쿄행 티켓까지 쟁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은 22일 밤 10시 15분 태국 랑싯 탐마삿 스타디움에서 호주를 상대로 2020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십 준결승전을 치른다.

이번 대회는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최종예선을 겸하고 있다. 1~3위 팀은 올림픽 본선 무대로 직행한다.

도쿄 올림픽 직행 티켓이 걸린 중요한 경기인 만큼 김학범호가 호주를 상대로 펼칠 전략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역대 전적으로 따지면 한국은 호주를 10승 2무 2패로 앞서고 있다.

호주는 지금까지 AFC U-23 본선에 3번 출전, 2014년 대회에서 한 차례 8강에 진출한 게 전부다. 한국은 똑같이 3번 출전해 2016년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고 2차례 4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서 호주는 조별리그를 1승 2무(조 1위)로 통과

U-23 축구 오늘밤 10시15분 호주와 4강전

승리시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호주, 시리아전 골 결정력 약점 노출
한국은 부실한 후반 조직력 지적

김학범 감독, 조커 카드 효과 ‘톡톡’
요르단전 이동경·중국전 이동준 등
후반 극장골...변칙 선수 기용도 적중

했으며, 지금까지 5골(3실점)을 기록했다. 한국은 7골(3실점)로 앞서고 있다.

8강전에서도 호주는 시리아를 상대로 부족한 골 결정력을 보여줬으며, 연장 11분에 가서야 가까스로 골을 넣으며 1-0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마냥 방심할 순 없다. 한국은 지난 19일 요르단과

경기에서 부실한 후반 조직력을 지적받았다. 실수가 잇따르고 역습을 쉽게 허용하며 수비진이 무너져 후반 30분 동점골을 내준 것이다.

김학범 감독은 컨트롤·조커 2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호주전을 준비한다.

김 감독은 선수들에게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비수가 돼 돌아온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 경기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새로운 정신 자세로 다음 경기를 준비하자는 것이다. 잦은 실수로 정신력과 조직력이 흔들렸던 요르단전에 대한 반성이다. 또 상황을 뒤집는 ‘조커’가 이번 경기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요르단전에서는 후반 교체 투입된 이동경이 후반 50분 극장골을 넣으며 승리했다. 중국전에서 후반 48분 극장골을 넣은 주인공도 후반 교체 투입된 이동준이었다.

이밖에 김학범 감독은 앞선 3번의 경기에서 변칙적인 선수 구성으로도 눈길을 끌었다. 6-8명의 선발 명단을 계속해서 바꿔 온 것이다. 이는 3일 간격으로 잇따르는 경기 일정에도 선수들이 지치지 않는 효과를 냈다. 또 상대 팀이 한국 전술을 분석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도 챙겼다.

한편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한국은 세계 최초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국가가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

손흥민 골 침묵 이번엔 깰까



내일 홈에서 노리치시티전
정규리그 4경기째 공격포인트 ‘0’
최약체 팀 상대 11호 골 득점 기회

손흥민(28·토트넘)이 지긋지긋하게 이어지는 골 침묵을 깰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토트넘은 23일 오전 4시 30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9-2020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4라운드 홈 경기에서 ‘썰매’ 노리치시티를 상대한다.

손흥민은 정규리그에서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와 잉글랜드축구협회(FA) 컵 경기까지 더하면 7경기째 골과 도움이 없다.

지난달 12일 번리와의 정규리그 경기에서 ‘70여m 질주 슈퍼골’을 폭발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손흥민은, 그 뒤 거짓말처럼 득점포가 잠잠해졌다.

특히 헬시전 퇴장과 3경기 출전 정지 징계에서 복귀한 뒤 발끝이 눈에 떨 정도로 무더졌다.

스피드와 드리블 둘과는 나쁘지 않았지만, 골 결정력이 떨어졌다. 전매특허인 송곳처럼 날카로운 갑아 차기 슈팅의 위력이 많이 저하된 모습이다. 덩달아 토트넘의 성적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최근 정규리그에서 4경기 무승(2무 2패) 부진에 빠져있다. 조제 모리뉴 감독 부임 뒤 한때 5위까지 치고 올라갔던 토트넘은 다시 8위(승점 31)로 내려앉았다.

중하위권 팀들과 승점 차가 얼마 나지 않아 까딱하다가는 하위권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후반이 들어 ‘주포’ 해리 케인 등 핵심 선수들을 부상으로 잃은 게 성적 하락의 주원인이다. 케인의 공백을 메워줘야 할 손흥민이 부진한 탓도 있다.

다행히 다음 상대는 승점 17점으로 최하위 20위에 머물러 있는 노리치시티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에 그친 데다 9실점이나 기록한 노리치시티는 토트넘의 승진고와 손흥민의 11호 골을 기대하기에 최적의 상대다.

만약 토트넘이 노리치시티를 상대로도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한다면 부진이 장기화할 수도 있어 손흥민의 득점포 재가동은 더욱 절실하다.

이강인의 소속팀인 발렌시아는 같은 날 오전 5시 3부 리그의 로그로네스를 상대로 원정에서 코파 델레이(스페인 국왕컵) 32강전을 치른다.

지난해 11월 28일 헬시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왼쪽 허벅지 근육을 다쳐 재활해온 이강인은 지난 19일 마요르카와의 정규리그 경기에서 교체 투입되며 복귀전을 치렀다.

예열을 마친 이강인이 약팀을 상대로 부상 복귀 골을 쏘아 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동강대 1호 프로야구 선수’ 박준표, 후배들과 특별한 동행

동강대 스프링캠프단 합류 필리핀행
지난해 KIA 49경기 방어율 2.09
“체인지업 집중 훈련…풀시즌 목표”

‘동강대 1호 프로야구 선수’ 박준표가 필리핀에서 후배들과 2020시즌을 설계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사이드암 박준표는 지난 13일 동강대 스프링캠프 선수단과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모교인 동강대 후배들과 함께 하는 여정은 오는 26일까지 계속된다.

박준표는 “개인적으로는 해외에서 시즌을 준비하는 것은 처음이다. 동강대가 필리핀에서 훈련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현우 감독님께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주셨다. 학교, 학부모님들도 배려해주셔서 후배들과 시즌 준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강대 후배들에게도 박준표의 동행은 반갑다.

박준표는 지난 2013년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KIA의 7라운드 지명을 받으면서, 동강대 출신 1호 프로야구 선수가 됐다.

동강대 첫 프로 선수가 된 박준표는 특유의 커브로 타자들을 낚으며 KIA 불펜 한자리를 차지했다. 경찰청에서 군 복무를 했던 2018년에는 선발 투수로 마운드를 책임지면서 평균자책점 2.37과 12승을 기록, 북부리그 투수 부문 2관왕에 등극하기도 했다.

박준표는 지난해에는 위용중 제거수술을 받느라 스프링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즌 중반 팀에 합류한 뒤 49경기에서 나와 2.09의 평균자책점으로 5승 2패 15홀드를 기록하며 불펜의 핵심 선수로 역할을 해냈다.



필리핀 더 빌리지 야구장에서 동강대 후배들과 동계 훈련 중인 KIA 박준표(가운데)가 흥현우 감독(오른쪽), 트레이너로 참가한 리컨스포츠 재활센터 원우원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후배들의 롤모델이 된 만큼 박준표는 더 긴장하면서 이번 훈련에 임하고 있다.

박준표는 “따뜻한 곳에서 빨리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싶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술을 받느라) 준비를 못 해서 더 의욕도 넘치고, 후배들이 보는 만큼 더 모범을 보이고,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복귀 시즌을 성공적으로 보낸 박준표는 지난해와 같은 마음으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커졌다.

박준표는 “생각이나 마음가짐은 똑같다. 그런데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커졌다. 잘하면 무조건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지켜야

한다는 불안감이 커졌다”고 이야기했다. 더 커진 책임감 속에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박준표는 체인지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준표는 “커브나 싱커는 아무 때나 편하게 던질 수 있는데 체인지업은 아직 부족하다. 투볼에서도 던질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승부를 하는데 많이 편할 것 같다. 제구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체인지업을 유리할 때 밖에 못 던지니까 많이 던져서 자신감을 갖고 승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프지 않고 풀시즌 뛰는 게 목표다. 다른 특별한 목표는 없고 그냥 잘하고 싶다. 후배들과 열심히 시즌을 준비하고, 올 시즌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KBO, FA 등급제·샐러리캡 등 제도 개혁

전력 상향 평준화 위해 선수 등급화·연봉 총액 제한

20년 만에 KBO리그의 자유계약(FA) 제도가 대폭 바뀐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1일 2020년 첫 이사회를 열고 FA 등급제 시행 등을 결정했다.

신규 FA선수는 최근 3년간 평균 연봉 및 평균 옵션 금액으로 A등급(구단 연봉 3위 이내·전체 연봉 30위 이내), B등급(구단 연봉 4-10위·전체 연봉 31-60위), C등급(구단 연봉 11위 이하·전체 연봉 61위 이하)으로 나뉜다. 보상 규정도 등급별로 다르다.

A등급은 ‘전년도 연봉 200%·보상선수 또는 전년도 연봉의 300%’라는 기존 보상제를 따른다. B등급은 보호선수가 20명에서 25명으로 늘고, 보상금은 전년도 연봉의 100%다. C등급은 전년도 연봉의 150%만 보상하면 영입할 수 있다.

만 35세 이상의 신규 FA는 연봉과 관계 없이 C등급이 된다. 두 번째 FA는 B등급, 세 번째 이상은

C등급 보상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 2022시즌 종료 후에 FA 취득 기간이 고졸 8년, 대졸 7년으로 각각 1년씩 줄어든다.

전력 상향 평준화를 위한 샐러리캡 제도는 2023년 도입된다. 상한액은 2021-2022년 외국인선수와 신인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의 연봉(연봉·옵션·실지급액·FA의 연평균 계약금) 상위 40명의 평균금액의 120%다.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의 50%가 제재금으로 부과된다. 2회 연속 초과시에는 초과분의 100% 제재금과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 3회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150% 제재금과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 제재를 받는다.

최저연봉은 내년 시즌 현재 2700만원에서 11.1% 인상된 3000만원으로 변경된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올 시즌부터 등록된 3명의 외국인 선수가 모두 경기에 뛸 수 있다. 기존에는 3명 등록, 2명 출전이었다.

2023년에는 육성형 외국인 선수가 등장한다. 이들은 퓨처스리그에 출전하며 1군 외국인 선수 대세 선수로 뛸 수 있다. 투수·타자 각각 1명씩 영입할 수 있다.

KBO리그 규정 개정으로 정규시즌 1위가 2개 구단일 경우 와일드카드전 전날 1위 결정전이 열린다.

엔트리는 27명 등록, 25명 출장에서 28명 등록 26명 출장으로 확대된다. 확대 엔트리도 33명 등록 31명 출장으로 변경된다.

부상자명단 제도도 눈에 띈다. 10·15·30일로 나눠 부상자 명단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명단에 오른 선수는 해당 기간 현역선수 등록이 말소되지만 등록일수는 인정 받는다.

‘3피트 위반 자동아웃제’는 폐지된다. 대신 3피트 라인 이탈로 수비수와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심판이 수비방해 여부를 판단한다. 심판 재량 비디오 판독은 폐지되고, 판독 시간은 5분에서 3분으로 준다.

올스타전 선수는 25명(감독 추천 투수 1명 추가)으로 늘고, ‘베스트12’가 부상 등 이유로 출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다 득점 2위가 대체 선수로 나선다.

정규시즌 우승팀은 홈 어드밴티지 강화로 한국시리즈 1.2.5.6.7차전을 안방에서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